



탈북민 다음세대, 통일세대로 키워야 한다

임 창 호

장대현학교¹⁾ 교장

1. 통일교육 없이 통일은 없다.

다가오는 통일을 앞두고 탈북민 다음 세대를 통일세대로 키우는 통일교육이 시급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와 시민들은 그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철학자 칸트는 그의 교육학강의(1801) 첫 페이지에서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다. 기대되는 인간상이 있다면 사람을 교육해야 하며, 기대되는 사회 공동체상이 있다면 역시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 인간사회의 모든 이

1) 2014년 3월 개교한 영호남 지역 유일의 학력인가 기숙형 대안 탈북학교이다. 2022년 11월 부산 최초의 사립대안학교가 되었다. 현재 40여명의 교직원인 19명의 탈북학생을 교육하고 있으며, 2023년 3월 장대현중고등학교로 개교할 예정이다.

상과 목표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교육 없이 체제가 유지되거나 발전할 수는 없다. 교육은 인간과 사회를 존재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인 것이다. 동시에 교육은 미래를 향한 보험이다.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통일도 마찬가지이다. 통일을 원한다면, 그리고 기대하는 통일국가 체제가 있다면 반드시 통일교육이 동반되어야 하며, 전방위적인 국민 통일교육이 실시되어야만 할 것이다. 통일교육 없는 통일은 없는 것이다.

2. 탈북 자녀들의 입국과 한국 내에서의 학교교육 현실

통일부 통계에 의하면 2022년 6월 현재까지 입국한 탈북민의 총수는 33,834명이다. 2020년 9월 현재 통계에 의하면, 입국 당시 연령이 19세 이하인 아동 및 청소년은 10~19세가 3,800명, 0~9세가 1,297명으로, 해당 연령층은 총 5,097명이다. 이들은 국민의무교육 혹은 기본교육인 초중등교육 대상 연령층이다. 20~29세까지가 9,567명에 이르는데, 이들은 대학교육이나 기술교육 대상 연령층이라고 볼 수 있겠다.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및 기술교육 대상 연령층을 합하면 14,664명이다. 입국 시 교육 대상 연령에 해당되는 탈북민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전체의 43%에 이른다.

2021년 4월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현재 초중고(인가 대안 학교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탈북학생 수는 2,287명이고, 미인가 탈북대안 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 259명까지 합하면 2,546명에 이른다.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탈북학생의 출생별 분포를 보면, 북한 출생 학생이 789명(34%), 중국 및 제3국 출생 학생은 1,498명(66%)으로서 북한 출생 학생들보다 중국 및 제3국 출생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정규학교가 아닌 탈북대안 교육시설의 중국 출생 학생 비율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2020년 이후 북한 정부의 국경지대 탈북자 단속이 더욱 엄격해지고 코로나 확산으로 북중 국경지대가 봉쇄되면서 북한주민들의 탈북이 어려워지자, 이들의 대한민국 입국이 감소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중국 내에 불법 거주하고 있는 탈북여성들이 한국의 소식을 접하면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입국 후에 중국에 남기고 온 자녀들을 다시 한국으로 데려오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국내 탈북학교의 중국 출생 탈북자녀들의 수가 동반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한국의 학교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2022년 10월 31일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발표한 내용에 의

하면 일반학교에 다니는 초중고 탈북학생들의 평균 학교중도탈락률은 1.6%(34명)에 이른다. 2021년에는 1.2%(27명)였던 것이 1년 만에 26%나 증가하였다. 숫자상으로는 미미해 보이지만, 일반학생들의 2022년도 중도탈락률이 0.8%(42,755명)인 것을 감안해 볼 때 2배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탈북학생들이 현재 한국 학교에서 공부하는 상황은 한국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보다 두 배에 이른다고 볼 수 있겠다.

탈북대학생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탈북학생 중 약 80%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지만, 2020년도 남북하나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8.5%의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따라가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탈북학생들이 한국 학교교육을 따라가는 일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행군이라는 것이다. 조사기관에 따라서 들쭉날쭉하기는 하지만, 탈북대학생의 중도탈락률이 11%(데일리굿뉴스, 2020. 1. 14.)라고도 하며, 어떤 조사기관은 80% 정도가 중도 탈락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도 있다(시사IN, 2020, 520호). 우리들학교 교장에 의하면 탈북 대학생 중 10% 정도만 졸업장을 받고 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은 하지만, 탈북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탈북청소년들의 학교교

육 현상이며, 반드시 풀어야 할 현실적 과제라고도 볼 수 있겠다.

3. 탈북민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와 시민들의 관심과 시선

탈북민에 대한 이슈나 현안은 대개 북한 인권을 고발하고 북한 사회의 실체를 알리는 증인으로서의 이슈라든지 자유민주주의 세상에 발을 디딘 이들의 정착 문제 등에 집중되었다. 통제사회인 북한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게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착이 녹록하지 않고, 그로 인해 한국에서의 생활이 힘겨운 것 또한 현실이다. 때문에 많은 리서치 단체와 연구소, 정부 등의 기관이 이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설문조사하며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사실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은 탈북민에 대한 한국인의 시선이나 편견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적지 않은 한국인들은 탈북민을 만나면 이렇게 조언한다. “한국에 왔으니 여기서 정착하여 살려면 빨리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한국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라!” “북한에서 살았던 정신으로 한국에서 열심히 살면 왜 못사느냐?” “한국에서 굶어 죽을 일도 없는데 무엇이든지 하면서 살면 되지 않느냐?” “너희만 힘든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모두 힘들게 살아.”라는 식이다. 언뜻 들으면 일리 있는 말이고

모두 맞는 말들이다. 그런데 이 말의 뒤를 살펴보면 탈북민들을 단지 ‘못 먹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 ‘잘살아 보려고 성공하기 위하여 한국 드림을 안고 이 땅에 온 사람들’ 정도로만 바라보는 시선에 고정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탈북민들을 ‘새터민’이라고도 부른 적이 있다.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미국으로 건너가는 이민자들과도 같이 한국 드림을 따라 한국 땅에 찾아온 단순 이민자 취급을 하는 것이다. “한국이 대단한 나라이니 북한 같은 열등국가의 생활과 문화는 빨리 지워버리고 자랑스런 한국인이 되도록 힘써라.”는 식이다. 매우 제국주의적 요구이며 오만한 요구이다. 로마제국은 모든 민족들을 로마화시키려고 했고, 일제강점기의 일본은 조선 사람들에게 조선말도 금지하고 이름도 개명해 가면서 대동화시키고 일본화시키려 하지 않았는가? 제국주의자들의 오만한 요구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러나 탈북민들은 새터를 찾아 이주해 온 자들도 아니고, 단지 배고픔 때문에만 이 땅에 온 자들도 아니고, 단지 잘살아 보려고 한국 드림을 찾아온 자들도 아니다. 죽음을 피해 온 자들이고, 자유를 찾아온 자들이고,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찾아온 같은 형제요, 골육이요, 친척들이다. 통일 연습을 위해서 미리 온 통일한국 선발대원들이다. 이 문제에 대해 탈북민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국민적으로 계몽되고 교육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 사회에 하루속히 동화되고 잘 적응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독재체제 하에서 노예와 같이 살아오면서 철저하게 세뇌되어 빼앗긴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깊은 상처를 치유하도록 돕는 것이다. 한껏 낮아지고 뭉개진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병들고 상처받은 자들에게는 아픈 곳을 싸매어 치유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입국하여 4~5개월 정도 조사를 받고 하나원을 나오자마자 자본주의 경쟁사회체제에 적응하라고 강요하고, 대학부터 들어가서 자격을 갖추라고 하는 것은, 심신 깊은 곳의 쓴 뿌리와 덧난 상처를 덮어 둔 채 겉모양새만 우선 갖추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들은 통일의 대상인 2천3백만 북한 동족들을 대신해서 한국으로 먼저 보내진 통일연습 파트너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4. 탈북자녀들은 통일시대의 인재로 키워야 할 귀한 자원들이다.

한국 사회는 한국에서 한 번도 교육을 받아 본 적 없이 한국에서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탈북민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의 72%가 여성이며, 이들 가운데 30~40대 여성이 12,104명이다. 이 숫자는 전체 탈북민의 약 30%에 해당하는데 이들에게는 초중고생 자녀가 딸려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한다. 한국 생활에

첫발을 딛는 자녀 딸린 탈북민들에게 최대 현안은 여느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녀교육 문제이다. 이 자녀들은 잘 키우면 통일 인재 자원으로서 10년 뒤 혹은 20년 뒤 한국 아이들과 함께 통일한국 시대를 세워가는 엄청난 원동력이 될 것이다. 반대로 이들을 2등 국민으로 차별하고 무관심하게 방치한다면 사회 자본을 엄청나게 사용해야만 하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한국인들은 이들 자녀들에 대해서도 탈북민 성인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즉 이런 것이다. “북한말 하지 말고 빨리 한국말을 배워. 공부해. 빨리 한국 문화에 적응하도록 노력해. 이 나라는 공부해야 하는 곳이야. 왕따 받아도 이겨내고 한국 아이들과 같이 경쟁해서 따라가야 해.” “탈북민끼리 몰려다니지 말고 한국 아이들과 어울려.” 등이다.

북한에서 혹은 중국에서 태어나 수년간 이곳저곳을 헤매다 천신만고 끝에 엄마가 있는 한국 땅에 들어온 자녀들, 일주일에 한 번씩 북한 장마당에서 한국의 문화컨텐츠(영화나 드라마 등)를 본 것이 들통나 사형당하거나 형무소에 끌려 들어가 고초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온 아이들, 거의 학교의 교정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꽃제비로 수년을 방황하다가 엄마를 찾아 들어온 자녀들, 혹은 부모와 가족을 모두 잃고 무연고자로 방황하다가 누군가의 손에 이끌

려 한국에 들어온 자녀들에게 사려함 없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요구이다. 아물지 않은 상처 위에 소금을 덧뿌리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들이다.

북한 아이가 북한말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북한말 하는 것이 죄인가?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말 하고 전라도 사람이 전라도말 하는 것이 죄인가? 북한말을 지우고 꼭 서울말을 해야 하는가?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수정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관용과 인내를 보여 줄 수는 없는가? 그들을 처음부터 기를 꺾어 버리고 열등 국민 취급하는 것은 공공연한 차별이고 인격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그렇지 않아도 열등함을 안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배워오고 자라온 환경을 빨리 지우라고 하니 괴롭고, 힘들고, 자존감마저 사라진다. 그래서 더 한국에서의 공부에 힘든 것이다.

청소년기는 국적과 지역을 불문하고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가장 넘어가기 힘든 어려운 시기인데, 이들은 그에 더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잔혹한 여정을 통해 이 땅에 들어온 아이들이다. 이 청소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슴 깊이 헤쳐진 상처의 치유와 가정같이 따뜻한 사랑의 보살핌이 우선되어야 한다. 치유와 보살핌 없는 경쟁적 학교 교육은 이들에게 오히려 무용한 것이다. 쓴 뿌리와 분노의 상처를 그대로 가슴에 묻어둔 채 학년을 넘어가며 공부를 하고, 빨리 한국말을 배우게 하고, 학교 졸업장을 수여한다면 그 획득된 지

식과 학력을 수단으로 훗날 가정과 이웃과 사회를 향해 상처를 토해내고 쓴 뿌리를 휘두르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와 사회는 이들을 위해 통일시대 인재양성이라는 차원에서 개별적 맞춤형 교육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 즉, 치유와 돌봄, 포용과 기다림, 격려와 북돋움을 동반한 맞춤형 눈높이 교육,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교육, 긴 시간의 여유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이들은 동화되어 정체성을 지닌 통일한국의 협력자이자 동시에 주인공으로 활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북한에서 기초를 닦고 북한 사회를 경험한 탈북민 자녀들이 한국에서 한국 사회를 배우고 국제적 감각을 훈련받아 훗날 통일한국의 북한 지역에 가서도 유용하게 쓰임 받고 한국 사회에 북한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인재로,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 북한과 남한을 둘 다 아는 통일 한국의 인재로 양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최근 들어 중국 출생 탈북 자녀들이 엄마를 찾아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부쩍 증가하고 있다.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중국 내 팔려 온 북한 여성들은 15만에서 2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그중 많은 여성들이 한국에 입국해 있고, 그들의 자녀들이 현재 한국의 초중고생으로 재학하고 있다. 2021년도 현재 중국 및 제3국 출생 초중고 재학 탈북학생 수는 1,498명이나 된다. 이

들 자녀들 가운데에는 한국말을 전혀 못 하는 아이들도 있다. 정체성에도 심각한 혼란이 있어 자신들을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앞으로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더 입국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들 탈북민 자녀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을 경우, 장차 통일시대에 중국 생활과 중국어에 능통한 동북아시아의 주요한 인재로 활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도 한국어와 한국 역사 및 문화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한국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이들에게는 정체성 교육을 강화하여 장차 동북아시아 시대에 주요하게 쓰임 받는 인재로 양성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확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 탈북학생들을 교육하는 탈북대안학교와 대안교육시설의 수는 18개교이다. 서울에 11개교(여명학교, 다음학교, 삼정학교, 금강학교, 반석학교, 남북사랑학교, 겨레얼학교, 한민족학교, 두리하나학교, 우리들학교, 지구촌학교), 경기도에 3개교(한겨레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한꿈학교), 강원도에 2개교(셋넷학교, 해솔학교), 충청남에 1개교(드림학교), 그리고 부산에 1개교(장대현학교) 등이다.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학력이 인가된 정규 대안학교는 2022년 12월 현재 4곳(하늘꿈중고등학교, 여명학교, 드림학교, 장대현학교)이며, 대안특성화학교가 1곳(한겨레학교)이고, 나머지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5. 작은 통일을 연습하고 있는 부산 장대현학교

영호남 지역 유일한 탈북학교인 장대현학교는 2012년 9월 어느 익명의 시민이 기증한 건물을 1년여간 리모델링하고 준비하여 2014년 3월에 탈북학생 12명을 받으면서 개교하였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지도와 협력으로 8년 동안 중고등학교 과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운영해 오다가 2022년 11월 28일 학력인가 대안학교(각종학교)로 승인되었다. 부산 최초의 사립대안학교 1호가 되었고 영호남 지역 기숙형 탈북학교로 유일한 학력인가 대안학교가 되었다.

현재 임창호 교장을 비롯하여 7명의 전임교사, 3명의 원어민 영어교사, 20명의 시간제교사, 5명의 직원 포함 40여명의 교직원이 19명의 탈북학생을 교육하고 돌보고 있다. 학생 1인당 교직원 2명이 배당되어 있다. 2023년 3월 1일에 20명 정원의 장대현중고등학교로 개교할 예정이며 교사도 12명으로 증원된다. 2025년까지 40명 수용 가능한 기숙사를 증축하면서 교육환경도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대현학교는 처음부터 탈북학생들을 위한 힐링, 돌봄, 교육, 진로지도라는 중요한 교육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다. 탈북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거치게 하고, 기숙형 학교 돌봄을 통한 전인교육 및 개인별 맞춤

교육을 통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며, 각자의 재능과 적성에 따라 통일인재를 목표로한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루의 일과는 매일 6시 50분 기상으로 시작하여 밤 11시 취침으로 끝난다. 오전 수업은 8시 30분부터 시작하여 오후 5시까지 이어지며, 저녁식사 후 7시부터 9시까지 개인별 맞춤형 방과후 수업이 진행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교내에서의 핸드폰 사용이 금지되고 주말과 외출 시에만 사용을 허락한다. 교과과정으로는 국민공통 일반교육과정 10과목을 동일하게 배우며, 대안교과와 다양한 체험활동 등이 펼쳐진다. 대안교과는 통일교육, 글로벌교육, 명사특강, 생활영어, 독일어와 독일문화, 중국어, 논술, 한국어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체험활동으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미술치료와 음악치료 과목을 통해 내적 치유를 도모하기도 한다. 특별히 미 국무성 폴브라이트재단 파견 원어민 영어교사를 포함해 3명의 원어민 교사가 6년째 지도하고 있으며, 독일코리아재단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교생이 통일독일문화와 독일어를 필수과목으로 공부하고 있다.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는 개설된 모든 방과후 과목이 개인별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외에 바이올린, 피아노, 전자피아노, 기타, 드럼, 합창 등의 음악수업을 소화하고 있다. 이들 과목은 자원봉사자 전문가들이 직접 학교로 찾아

와서 지도한다. 체육은 매일 아침 낙동강변길 산책하기를 비롯하여, 태권도, 댄스, 농구, 축구, 자전거타기, 줄넘기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매월 말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까지는 귀가하여 3일간 가정에서 생활하게 한다. 방학은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다. 방학 동안에는 여름과 겨울 각각 영어캠프와 수련회를 갖는다. 8년 동안 30개가 넘는 부산시 초중고등학교의 남한학생과 장대현 탈북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해 왔다.

장대현학교의 아이들은 기숙사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선후배 관계의 중요성을 배우고 더불어 사는 법을 학습하기도 하고 선생님들과의 깊은 상담을 통해 삶의 지혜를 나누기도 한다. 입학하여 1년 정도 지나면 얼굴들이 밝아진다. 청소년의 본래적인 모습들이 속살 드러나듯이 솟아나기 시작한다. 또한 다양한 명사들의 강의를 접하면서 꿈을 찾아가기도 한다. 2022년 현재까지 8년간 19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2명의 취업생, 2명의 미국 대학 유학생, 15명의 국내 4년제 대학 입학생(고려대, 이화여대, 경희대, 한동대, 대구대, 부산외대, 고신대) 등이 그들이다. 오늘도 장대현학교에서는 희망찬 통일연습이 진행되고 있다. **인본세상**